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❷ 오대산 상원사



▶한줄 요약
세조도 문수동자도 '말하지 마라'고 한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비밀을 발설하였을까?

오대산 나투신 문수보살을 친견하다

신라 자장 스님(590~658)은 643년(선덕여왕 12)에 당나라 오대산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해 받았다. 이후 신라로 돌아와서 인연 있는 곳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그중 다섯 곳인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등을 5대 적멸보궁이라 한다.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상원사에서 걸어서 50분 정도 걸리는 데다 그렇게 급경사도 아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이 계신 문수도량이다. 흔히 상원사는 중대 적멸보궁이 세워진 643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자장율사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때다. 그래서 약 60년 뒤 신라의 보천과 효명 두 태자에 의한 창건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는 〈삼국유사〉 제4권 '대산오만진신'에 있다.

보천, 효명 두 태자가 산중에 이르자 푸른 연꽃이 갑자기 폈다. 형 보천태자는 그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그곳에서 600여 보 떨어진 북대 남쪽 기슭에도 푸른 연꽃이 갑자기 피어나자 아우 효명태자가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하루는 형제가 오봉에 올라가 예배하고자 하는데, 동대에는 1만 관음보살, 남대에는 8대 보살과 1만 지장보살, 서대에는 아미타부처님과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는 석가여래부처님과 500 대아라한, 중대에는 비로자나부처님과 1만 문수보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5만 진신(眞身)에게 일일이 예배하였다. 매일 첫 새벽이면 문수보살은 진여원(지금의 상원사)에 와서 36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후 왕위를 승계할 일이 생기자 동생 효명태자는 왕이 되고, 형 보천태자는 남아서 수행을 계속하였다. 효명태자가 왕이 된 지 몇 해만인 705년(성덕왕 4)에 진여원을 고쳐 세웠다. 왕이 친히 백관들과 산에 이르러 불전과 불당을 짓고, 문수보살 소상을 만들어 당에 모셨다.



문수보살이 동자로 화현해 세조의 등을 밀어줬다는 내용을 표현한 그림.



상원사 동종.

세조의 등 밀어준 문수보살

문수도량인 상원사는 조선 세조(1417~1468, 재위 1455~1468)의 원찰(願刹)이다. 근처에서 문수보살이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다는 이야기는 흥미롭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밤 세조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세조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였다.

"에이 더러운 인간아. 어린 조카를 죽이다니. 조카의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더냐. 에이, 더러워라."

그 후 꿈속에서 침이 묻은 부위에 종기가 났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번지고 고름이 생겼다. 점점 심해졌다. 신비한 영약을 동원해도 효험이 없었다. 신미 스님의 권유에 따라 세조는 부처님 가피로써 치유하고자 전국의 영험 있는 기도처를 찾아다녔다.

세조는 상원사로 향하던 중, 근처 계곡에서 목욕하고자 하였다. 몸에 난 종기를 보이지 않고자 시종들을 물리치고 혼자 목욕하였다. 누군가 등을 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동자가 나타나 등을 밀어주었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자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도 임금의 옥체를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는 말하였다.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몸을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동자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세조의 몸에 난 종기도 사라졌다. 세조는 감격하여 화공에게 문수동자를 그리게 하였다. 그림이 완성되자 다시 나무로 문수동자상을 조성하여 상원사에 모시게 하였다.

지금 상원사 법당에 있는 문수보살상이 그 불상이다. 또 상원사 입구에 있는 관대걸이는 세조가 목욕을 위해 의관을 벗어놓은 곳이다. 세조가 문수동자에게 "누구에게도 임금의 옥체를 씻어주었다고 말하지 마라"고 한 것은, 임금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데 혹 이 일로 동자가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당부한 말이라는 풀이도 있다.

조선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
세조 만난 문수보살 이야기
한암 스님의 가람 수호까지
수많은 이야기 전하는 도량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세조도 문수동자도 '말하지 마라'고 한 비밀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과연 누가 이 비밀을 발설하였을까? 세조, 문수동자, 아니면 제3의 목격자일까? 세조가 문수보살을 그리게 하였으니 세조가 의심스럽다. 물론 이것도 상상이라거나 꿈에 보았다고 하면 그뿐이다. '너만 알고 있어' 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한편 충북 영동 반야사, 속리산 법주사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다. 세조의 업이 강하여 병이 재발하였는지, 아니면 중생을 끝까지 안아주는 문수보살의 자비심인지, 세 번에 걸친 치유의 손길이었다.

연꽃봉오리 하나 없는 범종

상원사에는 고양이 도움을 받아 세조가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단지 전설일 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만약 사찰에 자객이 있었다면, 그 사찰은 물론 대중스님도 무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상원사와 세조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리라. 현존하는 한국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 또한 세조와 인연이 깊다.

상원사 동종은 통일신라시대(725년, 성덕왕 24)에 제작되었다. 처음부터 상원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안동 고읍지 등 기록에 따르면, 고려 후기 안동 인근 사찰에서 안동 읍성 문무로 옮겨 매달았다. 1469년(예종 원년)에 선왕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왕명으로 상원사로 이운하였다. 혹은 세조가 직접 그의 원당인 상원사에 봉안할 종을 구하고자 전국을 다녔고, 그 결과 안동 문루의 종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하튼 안동에서 상원사로 옮기는 도중 죽령에서 종이 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종의 연뢰를 하나 절단하여 안동으로 보내 제사를 지냈더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종유(鍾乳) 또는 유두(乳頭) 대신 연뢰(蓮蕾)라는 말을 권한다. 범종인데 젖꼭지보다는 연꽃봉오리가 더 어울린다. 자세히 보면 연꽃이다. 9개의 연뢰를 둘러싼 테두리도 유곽(乳廓)이 아니라 연곽이다.]

혹은 이런 의견도 있다. 왕명으로 옮기는 종을 운송책임자가 함부로 파손할 수 있겠으며, 왜 하필이면 연뢰를 잘라야만 했을까. 없어진 연뢰는 주조 당시의 결함 또는 운송 시 파손 가능성이 있다.

화마로부터 지켜낸 한암 스님

현재 상원사 동종은 보존을 위해 타종하지 않는다. 똑같이 만든 종으로 대신하다. 사연을 알면 보는 것으로도 다행이다.

해방 직후 상원사 법당에 큰불이 났다. 그 불이 범종각으로 옮겨 붙기 직전이었고, 물을 구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 스님이 장독의 장을 부어 불을 끄게 하였다. 스님의 기지로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귀중한 성보를 구할 수 있었다.

그 스님이 바로 한암 스님(1876~1951)이다. 한국전쟁 때도 한암 스님의 법력이 있었다. 1·4후퇴 당시 오대산이 인민군 아래 들어가기 직전, 군에서는 오대산 내 모든 사찰을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월정사를 불태우고 군인들이 상원사로 올라왔을 때, 다른 대중은 모두 피하고 76세의 한암 스님만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장교는 절을 소각하고자 하니 법당에서 나오라고 하였다. 스님은 말씀하였다.

"그냥 불을 놓아라. 불법을 위해 죽을 것이다. 중이 죽으면 어차피 화장해야 한다. 그대가 군인의 본분에 따라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절을 지키는 것은 승려의 본분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승려의 본분을 지키다 죽을 것이다."

스님에게 감화를 받은 장교는 명령을 따르는 방편으로 법당 문짝만을 떼어서 마당에 놓아 불을 지른 다음 떠나갔다. 이때 상원사 법당은 물론 문수보살상, 상원사 동종도 무사할 수 있었다. 한편 월정사에 있던 범종은 월정사가 불탈 때 함께 녹아버렸다. 이처럼 한암 스님은 두 번이나 화마로부터 상원사 동종을 지켜냈다. 그리고 중대 사자암의 단풍나무는 스님의 법력이 아직도 오대산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단풍나무는 거꾸로 꽂았던 한암 스님의 지팡이가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학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